

## 2025 설날 가정예배 순서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 아멘 -

찬 송 -----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 다같이

- 1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절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절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대 표 기 도 ----- 가족 중

성 경 봉 독 ----- 고린도후서 5:17-18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설 교 ----- 복을 누리는 삶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사람입니까? 단지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가치들을 얻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보는 것, 복을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만 본다  
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하는, 평생을 복 받기를 악착같이 빌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순간 이미 진정한 복  
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에서 존  
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이신 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과  
의 관계 속에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십니다. 창12:2-3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구절에서 알 수 있  
듯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신28:12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보고 즉 보물창고에 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복의 근원  
이신,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  
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달라붙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  
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맺어진 사람입니까?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  
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  
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복이란 다름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가족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복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그 복을 삶에서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복을 누리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리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을 누리는 것은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 누리는 삶은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였던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삶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고 예수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이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주 기도 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3

#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면목중앙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면목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mjungangch.org](http://www.mjungang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